

칼럼

장기채 주필



실버들이 당당한 사회

인간 생명의 연장자로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노후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노인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웃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데도 고령친화산업의 진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으로만 일관해 왔다. 청년 일자리 부족, 중장년층 조기퇴직,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와 복지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학의 발전은 '100세 시대'로의 세상을 진입시켰다. 2050년경 한국은 전체 소비자 3명 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노인이 막강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꾸준한 고령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버산업 수준은 국내 총생산(GDP)의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는 실버산업의 발걸음이 매우 느리다. 지금의 추세라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10년밖에 안 걸린다.

국가연합(UN)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를 2009년 12.7%로 미국(17.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상승속도가 점차 빨라져 2050년에는 62.9%에 이를 전망이다. 공적 측면에서 노인의 나이는 법적으로 보면 그 기준이 법령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국민연금법에는 60세로 규정한다.

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55세 미만은 준 고령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은 들쭉날쭉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로 인식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70세로 하자는 의견도 많다. 아찔한 한국은 일하는 노인이 많다.

한국 노인들이 나이를 먹어서까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45세가 되면 정년 퇴직한다는 '사오정'이나 56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는 일본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한 예다.

나이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나 모습만 봐도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금방 알아내기 때문에 기계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선 매우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런저런 일 자리를 전전하는 중산층 노인이 많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불과 7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모두의 절실한 현실이다. 이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 경력과 인생 경험을 터득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고용을 막는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 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 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이 나라의 고령자(65-79세)의 42.7%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 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실버들이 당당한 사회가 더 행복한 이유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다.

社 說

고용장려금 관리 강화해야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의 채용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지난 3년간 재정 누수가 100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크다.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등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7천883억원으로 전년(3조7천879억원) 대비 52.8%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1조3천991억원)가 가장 많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1조3천41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천971억원) 순으로

많은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6천745억원)이 전년 보다 249.5%나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각 지방노동청의 장려금 지급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6~2018년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인 총 669명에게 추가장수액을 포함해 67억8천374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수급할 경우엔 1년 이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지원금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확철에 안전을 위한 예방법

우리 전남의 농민들은 가을철에는 평소보다 수확하는 데에 있어서 경운기 및 농기계 사용의 횟수가 평소보다 증가하게 된다.

농기의 업무는 이른 시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업무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안전장비 혹은 예방 활동에 있어서 몇 가지 미비사항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동수단인 차량을 예로 들 수 있다.

차량은 안전벨트, 에어백 등으로 운전자를 보호할 수단이 있지만 경운기 및 농기계는 안전수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신체적 외상에 항상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경운기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농기계는 기계

에 의하여 신체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의 사고 중 기계에 의하여 신체에 끼이거나 밟히거나 하는 등의 순간적인 실수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크게는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급한 순간이라도 안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운기의 경우는 같이 업무에 고생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루를 마치며 약주를 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에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제하여야 하며, 주변인들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처럼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수확 하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몸과 마음 모두 풍성한 10월이 되기를 바란다.

김태현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